

# 미리보는 정규시즌...새 사령탑 시험대



## 안산우리카드컵 남자부 관전포인트

4개 팀 감독 교체...지략 경쟁 관심사  
선수 이동 많아 전력 판도 변화 예상  
'죽음의 조' B조 배구 명가 자존심 총돌

프로배구 2013안산우리카드컵(7.20~28) 남자부는 관심이 가는 팀이 많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삼성화재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4개 팀 감독이 교체됐다. 이들이 어떤 배구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A조 (LIG손해보험, 우리카드, KEPCO)  
컴백한 사령탑들이 모였다.  
우리카드 강만수 감독은 "우승이 목표다. 팀 인수여부를 놓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훈련으로 정신을 집중시켰다. 더욱 배구를 잘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대표로 차출된 선수들이 많아 함께 손발을 맞춰볼 시간은 많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훈련장소를 구하지 못해 중학교 팀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다. 센터가 약해졌다. 신영석은 월드리그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정상이 아니다. 박진우는 U대회에 출전해 17일 팀에 합류했다. 박상하는 군에 입대했다. 리베로 이강주의 공백이 커 보인다. 리베로는 김명길이 나간다. 레프트 최홍석의 몸 상태가 나빠 삼성화재에서 데려온 보상선수 신오뜸이 그 자리에 출전한다. 지난 해 컵대회 챔피언 LIG손해보험은 센터 공백이 아프다. 문용관 감독은 "주전 이효동이 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거의 못했다. 김영래는 임의탈퇴중이어서 2년차 권중현으로 새 포메이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직 성에 차지는 않는다. 컵 대회 테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을 제외한 프로배구 남자부 4개 팀이 사령탑을 새롭게 교체한 가운데 컵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V리그 지난 시즌 삼성화재-대한항공 경기 모습.

마는 올라운드 플레이다. 김요한을 포함해 모든 선수에게 왼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기회를 잡을 전망이다.

KEPCO는 자신감 상승이 목표다. 지난 시즌 연패의 기억을 털어내는 게 급선무다. 센터 안요한은 레프트로 새롭게 시작한다. 2013월드리그에서 한국배구를 살려낸 서제덕은 월드리그를 계기로 라이트로 출전한 다. 세터와 리베로가 약해 보인다. 경험이 모자란 세터 양준식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B조 (삼성화재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죽음의 조다.  
삼성화재 신치현 감독은 우승을 목표로 합숙훈련을 시작했다. "컵 대회라고 설령

설령한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단단히 하고 있다. 훈련이나 경기는 무엇이건 최선을 다한다는 팀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여오현 석진옥 신오뜸 김홍정 등 4명이 빠져나가고, 이선규 이강주 등 2명이 새로 왔다. 주전이 많이 달라져 새로운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김강녕이 여오현을 대신해 리베로로 뛴다. 이강주는 석진옥의 자리였던 레프트다. 고준용이 기대주다. 월드리그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선수들의 컨디션 회복이 변수다.

대한항공은 레프트 보강을 목표로 삼았다. 심홍석 공재학이 주전으로 나간다. 김종민 감독이 "한 번 키워보겠다"고 선언했다. 군에 입대한 김학민의 공백은 신영수가 대신한다. 타점이 좋고 힘은 있지만 느리

다. 세터 한선수의 능력을 믿는다. 류윤식의 공격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은 1승이 목표다. 김호철 감독은 "열심히 했지만 선수가 없다. 12명 가운데 세터 2명, 리베로가 3명이다. 7명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선수가 모자란다. 삼성화재 대한항공과 같은 조라 힘들 것 같다. 편안하게 참가한다"고 말했다. 임동규 박주형이 레프트 선발이다. 여오현의 가세로 수비에 열정이 생겼고, 팀은 안정됐다. 문성민이 컴백할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필요하다. "20절 이후가 강해졌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 감독은 강조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 박주호 獨 분데스리가 마인츠 유니폼

계약기간 2년...이적료 약 7억4천만원  
투할 감독 편견 없어 출전기회 많을 듯

박주호(26·사진)가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05로 전적 이적했다.  
마인츠 구단과 박주호 측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양 측이 이적에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 옵션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호는 메디컬테스트를 마치면 계약서에 최종 서명한다. 마인츠가 상세한 이적료 액수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독일 언론들은 50만 유로(약 7억4000만원)라고 보도했다.

●모두에 윈-윈(Win) 계약  
박주호의 마인츠행으로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을 포함해 총

3명의 태극전사들이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게 됐다.

박주호는 오래 전에도 분데스리가로 갈 기회가 있었다. 승산대 출신으로 2008년부터 일본 J리그(미토-가시마-이와테)에서 활약한 박주호는 2011년 스위스 명문 클럽 바젤에 입단해 2시즌 간 유럽 무대를 경험했다. 박주호는 바젤과 4년 계약에 앞서 깊은 관심을 보였던 슈투트가르트(독일)에 입단할 수도 있었지만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에 따라 스위스로 떠나 성공적인 2년을 보냈다. 바젤에서 주전 왼쪽 풀백으로 뛰며 두 차례 정규리그를 제패했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도 나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마인츠는 1년 전부터 박주호에게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 올해 여름이적시장이 개장되면서 공식 접촉을 해왔다. 오랜 줄다리기를 끝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건 16일 무렵. 왼쪽 풀

백이 고민거리였던 마인츠로서는 최대한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밖에 함부르크SV, 도르트문트(이상 독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도 러브콜을 보냈으나 마인츠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박주호도 2014브라질월드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스위스와 같은 언어권인 독일이 낯다는 판단을 했다. 박주호는 스위스로 떠나며 "다음 단계는 독일"이라고 언급해 왔다.

마인츠의 환경도 나쁘지 않다. 특히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없다. 이 때문에 박주호도 꾸준히 출전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투헬 감독은 "박주호는 전술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도 풍부하다. 바젤에서 왼쪽을 철저히 책임졌다"고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 2부리그 수원FC 'FA컵 돌풍' 이어갈까

8강 대진 추첨...내달 7일 전북과 대결

K리그 챌린지(2부) 수원FC가 FA컵 8강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FA컵 8강 대진 추첨식을 가졌다. '돌풍의 팀' 수원FC는 이날 대진에서 마지막 순번에 걸린 K리그 클래식(1부) 전북 현대와 맞대결이 확정됐다. 두 팀은 8월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4강 진출을 놓고 다툰다.  
수원FC는 챌린지에서 5위에 올라 중위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단기전인 FA컵에서 놀

라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32강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김한원의 결승골로 대구FC를 1-0으로 꺾었다. 전남 드래곤즈와 FA컵 16강전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다. 후반 거센 추격을 받았으나 4-3으로 경기를 끝냈다. 하정현이 2골을 넣어 16강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수원FC는 2008년 KB국민은행(당시 내셔널리그)의 돌풍을 재현할 기세다. KB국민은행은 8강전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이겨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FC서울은 부산 아이파크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경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는 각

각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경기를 갖는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sanjun47

### 류승우 獨 도르트문트 입단제의 거절

류승우(20·중앙대)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도르트문트 입단 제의를 거절했다. 류승우는 16일(한국시간)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를 통해 도르트문트 진출설이 불거졌으나 험난한 주전 경쟁에 부담을 느껴 제안을 고사했다. 류승우는 6~7월 열린 U-20터키월드컵에서 2골을 넣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도르트문트의 러브콜을 받았다.

### 박주영 4주 기초군사훈련 마치고 퇴소

박주영(28·아스널)이 18일 논산 육군훈련소

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했다. 박주영은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 달 20일 입소해 4주간의 기초 훈련을 마치고 병역 의무를 마쳤다.

### KOVO, 23일 상벌위서 김연경 문제 논의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천안 현대캐피탈 종합체육관에서 제10기 1차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의 탈퇴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김연경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2013~2014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8월12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편집 | 박재운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故 구옥희 전 KPGA 회장의 시신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도착해 운구되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 故 구옥희, 하늘의 필드로

'한국 여자골프 전설' KPGA 협회장 영결식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故 구옥희(향년 57세) 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9시 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엄수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협회장(葬)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는 구자용 회장과 강춘자 수석 부회장, 이영미 부회장 등 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강수연(38), 신지애(25·미래에셋), 이정은(25·교촌F&B) 등 약 100명의 후배 선수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켰다.

김경자 전무의 약력보고로 시작된 이날 영결식은 이영귀 부회장의 조사 등 약 30분 간 진행됐다.

장례식장을 떠난 고인은 서울 양재동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치고 서울 흑석동 달마사에 안치됐다. 당초 고향 충남 서산의 선산에 안치될 예정이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바뀌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체육훈장 맹호장(2등급)을 추서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 전국 34개 골프장 흑서기 휴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18일 2013년 하계 골프장 휴·개장 현황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34개 골프장들이 하계 휴장을 실시하고 125개 골프장은 휴장없이 운영된다. 휴장하는 34개 골프장은 길게는 8일, 짧게는 1일간 휴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휴장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골프장이 많은 관계로 골프장의 휴·개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홈페이지(www.kgb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사 골프장들의 하계 휴·개장 현황 및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주영로 기자

## 한국 종합 4위...하계 U대회 폐막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27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8일 오전(한국시간) 카잔 아레나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한국은 17일 사격 25m 스탠다드 권총 남자단체전(김준홍·최용후·김대웅)에서 동메달을 추가함으로써 금 17개, 은 12개, 동 12개를 획득해 종합 4위로 대회를 마쳤다. 2003년 대구, 2009년 베오그라드(세르비아), 2011년 선전(중국) 대회에서 거둔 종합 3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중목인 태권도와 양궁이 제외된 가운데 얻은 결과라 의미 깊었다. 한국은 유도, 배드민턴(이상 5개), 펜싱, 테니스(이상 2개), 하키, 사격, 기계체조(이상 1개)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큰 관심을 모은 손연재는 한국리듬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볼 종목)을 목에 걸며 내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28회 대회는 2년 뒤인 2015년 광주에서 열린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

### 김훈 세계태권도선수권 남자 68kg급 은메달

김훈(21·한국체대)가 18일(한국시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2013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부 68kg급 결승에서 베흐나 아스바기칸(가흐)에게 4-5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 67kg급에 출전한 김잔디(18·부천정보산업고)는 16강에서 탈락했다.

###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감독 2년 구형

의정부지검은 1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동부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최후 변론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농구인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